

데스크 시각

‘반기문 바람’과 정치권의 과제



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대선 시계의 초침이 빨라지고 있다. ‘반풍’(潘風: 반기문 바람)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 30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6일 동안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출국했다.

그의 방한은 단숨에 여야의 기존 대선 구도를 뒤흔들며 큰 잔상을 남겼다. 출국에 앞서 ‘확대 해석을 자제해 달라’며 정치적 수위 조절을 했지만 그는 유력한 차기 집합이 되어 떠났다.

반 총장의 국내 일정은 정치적 행보와는 무관하다는 설명과는 달리 사실상의 대선 선편식으로 읽혔기 때문이다. 실제로 반 총장은 지난 25일 관훈클럽 강담회에서 “누군가 대통합을 선언하고 국가 통합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면서 통합의 리더십을 제기, 대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26일 제주포럼 기조연설을 통해서서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강조하며 대북 문제를 정치적 보복을 낳힐 교두보로 삼는 모습도 보였다. 정점은 지난 주말이었다. 공식 일정 없이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것이라던 28일에는 총정 정치의 대부 격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찾아 ‘총정권 대방문’에 불을 지폈다. 저녁에는 노신영 전 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을 만나 만찬을 함께했다.

29일에는 문화유산 탐방을 명분으로 서예 유성룡 선생의 고택이 있는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나무의 재왕’이라고 불리는 주목(朱木)을 기념 식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기름 장어’에서 잠룡으로

정치권에서는 그가 개인 일정으로 TK 지역(대구·경북)을 방문했다는 점에서 ‘총정+TK’ 연대의 대선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이번 방한을 통해 그는 호호한 태도를 유지했던 ‘기름 장어’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여권의 ‘잠룡’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앙일보가 지난 27~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에 표본오차 ±3.1%p)에서 응답자의 28.4%가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반 총장을

꼽았다. 2위와 3위를 차지한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는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하지만 반풍(潘風)이 내년 대선까지 위력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것이라던 28일에는 총정 정치의 대부 격인 김종필 전 국무총리의 자택을 찾아 ‘총정권 대방문’에 불을 지폈다. 저녁에는 노신영 전 총리 등 정·관계 원로들을 만나 만찬을 함께했다.

삶의 궤적도 그가 내세운 대통합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합의 원천은 신뢰이기 때문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외면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를 외교통상부 장관에 발탁하고 유엔 사무총장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는 노 전 대통령 사거 이후, 지난 2011년 단 한 차례 묘소를 찾은 데 그쳤다. 봉하마을에서 부탁한 추모 영상 메시지도 거절했다. 이번 방한 기간, 연고가 없는 경북 안동과 경주 등을 찾으면서도 노 전 대통령에 문헌 경남 감해는 찾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무신불립(無信不立)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TK를 찾아 충청·영남의 지역 연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과 여권 성향의 정·관계 인사들을 중점적으로 만난 것도 대통합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합의 비전을 제시했다기 보다는 기존 질서와의 영합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관료로서의 한계도 거론되고 있다. 그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지만 성공한 외교 관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시대의 아픔을 민심과 함께 온몸으로 밀고 나가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일부 지적도 있다.

정치불신에서 비롯된 ‘반풍’

하지만 반풍(潘風)의 등장은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동력이 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불신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정치적 때가 덜 묻은 외교 관료 출신의 반 총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20대 국회가 경제와 안보 위기 등 국내외의 엄중한 도전 속에서 개원했다. 16년 만의 여소야대 구도에 20년 만의 3당 체제는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정쟁과 대립이 아닌 대화와 협치를 통해 민생을 위한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보여야 한다.

반풍의 8할은 ‘뒀던 정치’에 기인한다. 정치권이 반풍의 저변에 깔려 있는 의미를 새기고 변화와 혁신의 길을 제시할 것인지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반풍의 종속번호로 끌려다니지는 않으리 그들에게 달렸다.

은편칼럼



박홍근 포유건축사사무소 대표

금남로 보행 환경 개선에 대한 다른 생각

경계선사업’이란 것을 하고 있다. 즉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현장의 내용은 개략 이렇다. 차선쪽은 줄이고 줄어든 만큼 중앙로 측 인도를 넓혔다. 보도는 화강석으로 재포장하고, 지하상가 입구간간은 패쇄형에서 투시형으로 교체했다. 가로수 주변 조각상은 옮기고, 그곳 포장재를 견어낸 자리엔 여러 종류의 작은 나무와 꽃들을 심어 차도와 보행로를 구획 짓고 있다.

분명 목표는 맞다. 광주 도심보행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데 장소 특성에 따라 방향이 달라야 한다. 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금남로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다른 생각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한다.

첫째, 차선쪽 대신에 차선을 줄이고, 교통체계를 바꾸자. 차선을 줄여 보행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반대도 많은 것이다. 주변 건물주와 상인, 일부 교통이나 도시 전문가인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를 많이 내놓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접근해야 했다. 도시란 살이 있는 생명체처럼 늘 변한다. 금남로 주변도 옛 전남도청이 있을 때의 기능에서 새로운 기능으로 변신을 해야 한다. 변신의 시작은 가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능으로 진화하게 된다. 지금과 같은 보행환경 개선으로는 변화를 꾀하기 힘들 것 같다.

차선을 절반으로 줄이고, 주변 도로와 연계하여 대규모로 개선해야 한다.

둘째, 가로변 건물과 함께 입체적 해결책을 찾자.

가로변 대형건물은 보행자의 접근성은 물론 시선으로부터도 단절되어 있다. 지하주차장의 커다란 입구, 높은 계단과 조각벽스는 보행환경개선을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다. 해결책의 하나는 건물과 입체적 연결이다. 1층 일부 벽을 후퇴하여 공공영역으로 내어 놓고, 보행로를 건물 내부로 확장시켜야 한다. 사람들이 비바람을 피하고, 뜨거운 햇볕도 가릴 수 있도록 하자. 때론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자. 이는 새로운 콘텐트로 건물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무슨 소리, 1층 공간이 가장 비싼 곳인데... 그러나 사람이 오지 않는 곳의 건물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선 공공성을 띠고 있는 전일빌딩 1층 공간을 시범적으로 해보길 제안한다. 이를 통해 주변 다른 건물에 긍정적인 효과가 파급되도록 있도록...

셋째, 보행로는 비우고, 단순화하자.

가로변 조각을 옮긴 자리에 가로수와 연계하여 관목류와 초화류로 새로운 벽을 만들고 있는데, 가로수를 제외하고는 모

두 없애야 한다. 금남로는 비워야 한다. 금남로는 광장의 성격이 강한 도로다. 518행사를 비롯한 많은 기념식, 월드컵 경기때 길거리 응원처럼 다양한 길거리 행사가 있어야 할 곳이다. 도심 축제인 총장축제를 비롯한 다양한 도심 축제를 할 수 있는 곳이다. 수시로 도심광장역할을 해야 할 곳이다. 분수대 주변광장의 연장선상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시 채우고 있다. 참 아쉽다. ‘비어 있음에서 쓸모가 있다’는 노자의 ‘도덕경’ 가르침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나의 주장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 방향과 다르다. 그러나 현재대로 마무리된다면 앞으로 상당기간 이곳 금남로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우리 하나를 하더라도 광주의 경쟁력이 될 만한 것을 만들었으면 한다. 민원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 때문에, 공사기간 때문에 어정정한 협의에 의해 추진된 사업은 광주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 광주의 집단지성을 모아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있는 ‘광주의 저력(?)’을 기대해 본다.

은편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편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쓰는 코너입니다.

기 고

친환경디자인에서 성장동력을 찾다

비교적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각 박람회회에서 추구했던 주제들이 자연스럽게 개최도시의 브랜드가 되었고 이후 도시를 활성화하는 성장동력이 됐다.

친환경이나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아니다.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생태, 녹색, 생명 등과 마찬가지로 환경을 배려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중요시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사용되어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1992년 리우선언 이후로 빈번하게 사용되어왔고, 전담은 일관되게 녹색전남, 친환경전남, 생명전남을 지역 발전의 기본정신으로 삼고 있다. 광주시도 녹색광주를 가꾸기 위해 노력했고,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해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을 통해 이를 문화화, 산업적 연결고리를 찾기위해 열정을 쏟았다.

친환경디자인박람회는 우리가 지향하는 지역정책이나 지역보유자원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고 시의적절한 이벤트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이제 박람회는 끝났다. 중요한 것은 그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단지 일과성 이벤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향후 박람회와 추구하

려는 취지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한다.

무엇보다 친환경 디자인에 관한 스펙트럼을 한층 넓혀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디자인은 융·복합적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산업 측면에서도 6차산업적 접근이 필요하고, 공간영역도 도시, 농촌, 산촌, 해양도시 등 구별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나 기술영역도 도시계획, 도목, 조경, 환경, 문화, 예술, 관광, 과학, 산업, 심지어 인문학분야 등을 총망라한 참여가 요구된다. 무엇보다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하며, 아울러 지자체들의 상호협력력을 통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각 지자체 정책이 친환경디자인 개념을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전남이 추진하고 있는 숲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가꾸기, 남도문예 르네상스 등 주요 브랜드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각 시·군들의 지역개발 및 산업정책에도 적극 도입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지자체들이 개최하고 있는 지역축제는 그야말로 융·복합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또 하나의 친환경박람회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박람회 개최장소는 시가지가 형성된 공간에서의 생활현장이 되어야 한다. 기존

의 장소는 농업박람회와 개최되고 있는 장소라서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장소일지 몰라도 두 개의 이벤트가 머리 속에 중첩되면서 두 이벤트 모두 기대감을 약화시킬 수 있다.

친환경디자인 컨셉과 상반된 일회성 이벤트라는 인식도 부담이 될 수 있다. 1993년에 개최된 ‘시가지만국박람회’는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획기적으로 바꾸놓은 계기가 되었고 도시전체가 건축박물관이라고 불릴 만큼 특색 있는 도시로 발전했다. 일별 미야자키의 경우 1999년 ‘미야자키 도시녹화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명실공히 정원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박람회는 교육과 홍보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실제 도시에 적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할 수만 있다면 산업화까지도 의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최근 박람회들의 경향이기도 하다. 따라서 만약 계속해서 친환경디자인박람회를 개최할 생각이라면 도시 속에서 기존의 시설을 이용하고 시민들의 참여 가운데 추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빛가람혁신도시에서 광주전남 상생전략으로 공동개최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도시에서 개최하든 그 개최도시를 ‘친환경디자인 모델도시’로 발전시켜나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것을 제안한다.

社 說

복막전 된 재개발사업 미리 근절 대책 없나

도심의 낡은 주택을 헐고 새 아파트로 짓는 재개발사업 잡음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갈수록 비리가 가관이어서 당국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관리체계가 자체가 허술한 탓에 사업권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행태는 흡사 복막전을 방불케 한다.

옛그제 광주동부경찰이 적발한 계림2구역 재개발조합 사건도 대표적인 ‘구조적 비리’다. 재개발조합은 총회를 거쳐 용역 및 시공업체를 정하도록 돼 있지만 이는 허울뿐이어서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검은 돈과 결탁하는 바람에 추문이 이어지고 있다.

계림2구역 재개발 조합장 장오 씨의 전문관리업체 선정과 정소·경관분석·설계 용역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 시공사와 용역업체 선정은 조합 총회의 의결로 결정되지만, 조합원들은 총회에서 조합장이 선정한 업체를 추진만 하도록 돼 있어 이 같은 범죄가 가능했다. 재개발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비·설계·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조합이 업체를 선정하는 권한은 10여 개가 넘는데 허수아비 같은 감시 체계 때문에 조합장이 거러김 없이 전횡을 일삼는 것이다.

당연히 업체 선정도 째짜미다. 겉으로는 공정을 기한다며 경쟁입찰을 한다지만 조합장과 결탁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통과예열 뿐이다. 조합장과 사전에 입을 맞춘 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도록 기술적인 제한을 두는 등 변칙적이어서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탈선이 그치지 않고 사법 처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재개발 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주고받는 조합 관계자나 업체에 대해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돼 왔다. 하지만 가짜이나 경기가 어려운 탓에 업체들의 로비가 치열해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 차라리 서울시처럼 재건축 설계부터 입주까지 지자체가 감독하는 ‘공공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그나마 비리를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일 것이다.

불법 거래 농수산물 도매시장 수사 철저히

농수산물 도매시장 입주 법인과 중·도매인들 때문에 폭파 출하 농민들이 10년 동안 무려 10차례나 이곳저곳으로 경매장을 옮겨다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우리는 당시 폭파 출하 농민들의 눈물을 더 이상 지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데 이번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최근 2년간 120억 원에 육박하는 불법 거래가 이뤄진 사실이 적발됐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최근 광주 각·화·서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해 도매법인 등 유통 종사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했다.

광주시의 감사 결과, 중·도매인은 산지에서 농산물을 직접 사들여 상장을 할 수 없지만, 직접 매입한 일부 품목에 대해 정상적인 경매 절차를 거쳐 물건을 낙찰받은 것처럼 조작했다. 또 폭파 등 일부 품목은 일부만 상장거래하고

나머지는 외부로 반출해 거래하는 등의 위법행위도 있었다. 이번에 농협을 제외한 5개 법인과 경매사 6명, 중·도매인 25명이 적발됐는데 지난 2년간 불법 거래한 내용은 갠마늘·대파·미나리·쪽파 등 7개 품목에 120억 원에 달했다.

또한 상당수 중·도매인이 ‘발매기’로 농산물을 매입한 뒤 출하지를 하위로 꾸며 이른바 ‘셀프 거래’를 해 왔다. 특히 수수로 부담을 덜기 위해 상장 농산물의 양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불법 거래량은 적발된 경우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필요하다. 마침 광주시가 일부 중도매인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고 위법을 저지른 도매시장 법인 등 유통 종사자를 사법 당국에 수사 의뢰한다니, 엄정한 수사로 다시는 위법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어릴 적 가까운 동네 아저씨를 부를 때 흔히 아재라고 했다. 친척이나, 혹은 친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먼 관계도 아닌 아버지뻘 어른을 부를 때 쓰는 친근한 호칭이었다.

이제는 원래 아저씨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요즘에는 유행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한물간 설렁한 유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인 아재 개그는 단어를 변형해 만드는 것인데 예

를 보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배철수’ 하는 식이다.

아재는 원래 아저씨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요즘에는 유행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한물간 설렁한 유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인 아재 개그는 단어를 변형해 만드는 것인데 예

아재와 개저씨

아재와 개저씨를 부를 때 흔히 아재라고 했다. 친척이나, 혹은 친척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먼 관계도 아닌 아버지뻘 어른을 부를 때 쓰는 친근한 호칭이었다. 이제는 원래 아저씨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요즘에는 유행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한물간 설렁한 유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인 아재 개그는 단어를 변형해 만드는 것인데 예

를 보면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배철수’ 하는 식이다.

아재는 원래 아저씨를 낮추어 부르는 말인데 요즘에는 유행이나 시대에 뒤떨어진 청년 남성을 가리킬 때 사용하고 있다. 한물간 설렁한 유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대표적인 아재 개그는 단어를 변형해 만드는 것인데 예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0195)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